

한글 - 한자 이체자 형성에 관한 논의

2018. 7.5(목)

전응준(유미 법무법인 변호사)

1. K-LGR(초안)에서 제안된 한글-한자 이체자 묶음(5개)

U+C2A5 속 - U+4ECA 𪎠
U+C2B4 습 - U+5408 습
U+C4F0 쓰 - U+4E1B 𪎡
U+B9C8 마 - U+535F 𪎣
U+B258 뉘 - U+723F 𪎦

2. 한글-한자 이체자 묶음의 필요성

- IP(Integration Panel)는 관련 RFC 문서에 근거하여 한글과 한자 사이에 visually identical 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두 이체자(variant)로 묶을 것을 요청함
- 이에 따라 KGP는 종래 한자-한자 사이의 이체자 외에 한글-한자 사이에 모양상의 현격한 유사성이 있는 문자들을 검색하여 위 5개의 묶음을 제안하게 됨
- 한자 - 한자 사이의 이체자는 의미(semantic)적인 관점에서 같은 글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, 한글-한자 사이의 이체는 모양(visual)상의 관점에서 같은 글자 여부를 따지는 것임

3. IP요청 내지 KGP 제안에 대한 중국, 일본의 입장

- Repertoire에 있는 모든 문자 사이에 visually identical 한 관계를 탐색하여 모양이 같은 문자를 이체자로 형성하라는 IP의 요구는 특히 일본의 문자생활과 크게 반한다고 보임
 - IP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일본은 카나와 칸지 사이에 모양이 유사한 문자들을 이체자로 인정해야 하는데, 그에 따라 나중에 신청된 label이 등록거부(block)될 가능성이 발생함.
 - 이는 모양이 사실상 같은 카나와 칸지 문자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일본의 현실에 반하는 것임

- 나아가 이러한 IP의 요청을 수용한 KGP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매우 불편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음
 - 종래 한자 사이의 이체자 논의는 한중일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 반하여, 한글-한자 이체자 인정은 오로지 한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임

4. 한글-한자 이체자를 인정할 것인지 재검토 제안

- 만약 일본이 한글-한자 이체자 내지 카나-칸지 이체자에 중국적으로 반대한다면, 우리도 한글-한자 이체자를 인정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- 재검토 이유
 - 그간의 한중일 협력관계를 존중
 - 한국보다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, 일본을 배려
 - 한국 입장에서도 큰 실익이 있는지 의문
- 가정적인 예
 - K-LGR에 따라 ‘슴同’ label(한글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이 먼저 신청/등록된 경우, 중국측은 계약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‘슴同’label(한자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신청할 수 없음(block됨)
 - 위 예에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신청된 ‘슴同’ label(한글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TLD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의문임. 오히려 중국측의 문자생활에 부합하는 ‘슴同’label(한자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사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함
 - 현실적인 가능성 관점에서, 한국측 사용자가 ‘슴同’ label(한글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만약 신청한다면 악의적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록을 저지할 필요가 있음
 - 만약 한글-한자 이체자를 부정한다면, 위 예에서 중국측이 먼저 ‘슴同’label(한자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신청하였음에도 나중에 한국측 사용자가 ‘슴同’ label(한글 슴과 한자 同의 결합)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confus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. 이는 사후적인 분쟁조정절차, 예를 들어 PDDRP(Post-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)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(끝)